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 학술행사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법

협동조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온 법학자, 변호사 등의 법제 전문가를 비롯하여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눔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

손연아(한국법제연구원 전략사업실 연구원)

I. 행사 개최배경, 목적

1. Legal Framework for Co-operative Code in Portugal and its Impact for Portugal and European Countries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 악화,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 사회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 등은 우리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식을 공유하게 하였다. 이에 정부는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을 모두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중 특히, 소득창출, 고용증진,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의 효과를 낸다고 평가 받는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으며,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내 협동조합 관련 법제를 되돌아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 3월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협동조합법 최신 흐름과 시사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행사는 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후원 하에 마련되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포함한 주요국의 협동조합법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제도 정비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호 의원의 축사를 거쳐, 해외 주요국의 협동조합에 대한 기초발제,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이루어졌다.

II. 주요 논의 내용

2. 조합원, 조합원 총회, 조합원의 투표권, 조합원운영 기제 등

3. Legal Status of Co-operatives in the Spanish Co-operative Law; Comparison with Investor-owned Company

첫 기초발제는 포르투 회계행정대학교의 Delonda Meira 교수가 ‘포르투갈 협동조합 법체계의 특징과 그 영향¹⁾’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였다. Meira 교수는 포르투갈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의 정의, 설립 절차, 법인격, 거버넌스 체계²⁾, 협동조합 운영 및 감독 모형, 자금 조달 등 포르투갈 협동조합법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의 다양한 사례 중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목적으로만 활동하는 사회연대협동조합(Social solidarity cooperatives)을 소개하며, 다른 협동조합과는 구별되는 이들의 운영 방식, 자금체계 및 적용 법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두 번째 기초발제를 맡은 발렌시아 대학교의 Gemma Fajardo Garcia 교수는 ‘타 기업형태와 비교하여 본 스페인 협동조합법에서의 협동조합 법인의 위상³⁾’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학술행사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발제자 및 토론자들

Garcia 교수는 협동조합과 여타의 결사체 및 회사의 법적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스페인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의 운영방침, 협동조합 관련 기구의 구성과 역할, 출자 방식, 세금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스페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례 소개를 끝으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기조 발제 후에 진행된 첫 주제발표는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김형미 소장이 맡았다. 김형미 소장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체 현황을 설명하며, 국내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형미 소장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캐나다(퀘벡 주)의 협동조합법의 특징을 상세히 비교·분석하며 우리나라 협동조합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협동조합체계의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박광동 연구위원은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의 협동조합법에서 협동조합이 갖는 위상, 관련 현황, 설립등기, 목적, ICA 원칙 반영여부, 조합원, 기관 출자금, 회계, 사회 여타 조직과의 관계 등과 같은 사항을 비교하며, 한국의 협동조합법체계의 정비를 위해 입법평가 방안의 수정 및 협동조합법체계 모형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토론에는 지속가능한도시건축연구소 강봉준 대표, GSnJ 시니어이코노미스트 박성재 대표,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홍성민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토론 참가자들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협동조합법 상의 내용 및 실제 적용 사례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에 동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협동조합법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기도 하였다. 즉석에서 이루어진 청중과의 자유토론을 끝으로 본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III. 시사점 및 기대효과

국회 사회경제경제포럼과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후원 하에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한 협동조합법 학술대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주요 사례로 하여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러 국가의 노력과 제도를 살피고, 국내 협동조합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되었다. 아울러, 본 행사에는 오랜 시간 협동조합법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해온 법제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한층 실효성 있는 협동조합법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다.

약 100여 명이 참석한 본 행사에서 각국의 협동조합법 전문가 및 협동조합 이해관계자가 논의한 사항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상황 맞는 협동조합의 법제도 정비 및 지원육성사업을 위한 입법 활동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